

# 2024년 인센티브(Incentive) 여행 참가자 방한행태 분석

인센티브 여행은 기업이 직원에게 포상으로 여행비를 지원하는 형태의 여행입니다.  
본 자료는 해외 기업의 방한 인센티브 여행 산업의 동향 분석을 위해  
2024년 인센티브 여행 참가자의 방한 행태 및 2023년 대비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.

자료 출처: 2023·2024 MICE 참가자 조사(한국관광공사)



## 응답자 거주국별 분포 (n=1,500, %)



\* 인센티브 여행객의 거주국 비율에 따라 사후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
\* 가중치가 적용된 마카오의 사례수는 0.03명임



2024년 인센티브 여행 참가자 중 약 70%는 본 여행을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, 인센티브 행사가 방한여행 관심 및 경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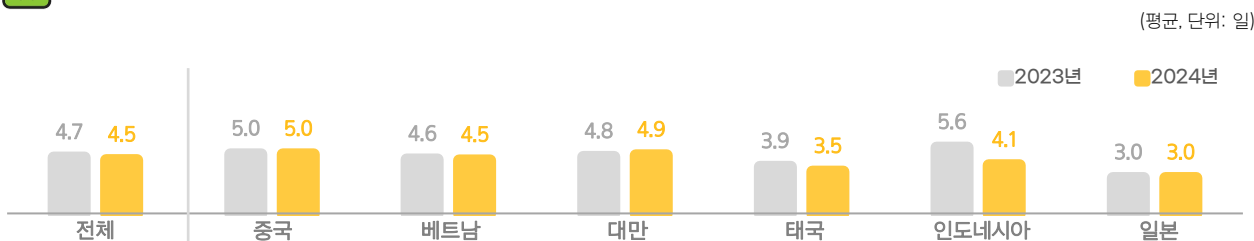
- 인센티브 여행을 통한 첫 방한율은 인도네시아(90.7%), 태국(77.2%) 참가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
- 2024년 한국 체류 기간은 평균 4.5일로, 전년도(평균 4.7일)와 유사한 수준이며, 거주국별로는 상대적으로 일본 참가자(평균 3.0일)의 체류기간이 짧고, 중국(평균 5.0일), 대만(평균 4.9일) 참가자의 체류기간이 긴 편임
- 목적지는 대부분(80.4%) 회사에서 결정하며, 상대적으로 중국(29.1%), 태국(28.3%) 참가자는 참가자 의견 조사를 통해 결정했다는 비율이 높음

## 인센티브 여행을 통한 첫 방한율 (최근 5년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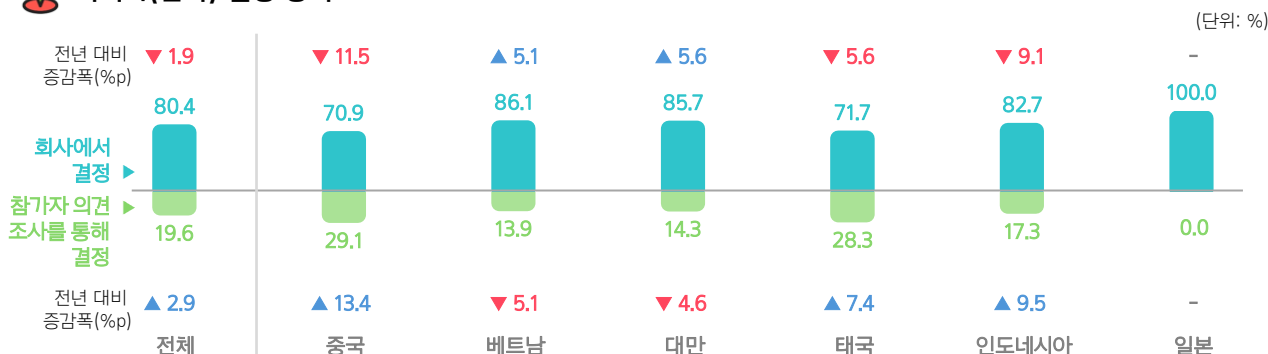


\* 2019년 1월 1일 이후 관광 목적 방한 경험 없음 비율

## 한국 체류기간



## 목적지(한국) 결정 방식





방한 중에는 주로 '쇼핑', '시내관광', '식도락 관광' 등에 참여했으며, 전년도 대비 '식도락 관광', '오락' 참여율이 증가하고, '자연경관 감상' 비율이 감소함

- 주요 거주국에서도 '쇼핑', '시내관광', '식도락 관광'이 주요 활동(1~3위)으로 나타난 가운데, 인도네시아는 '식도락 관광'(5위) 대신 '자연경관 감상'(3위)이 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차이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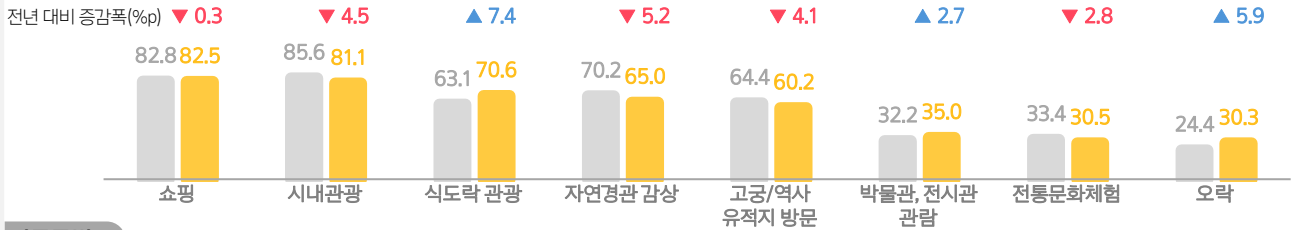


## 방한 중 참여 활동(TOP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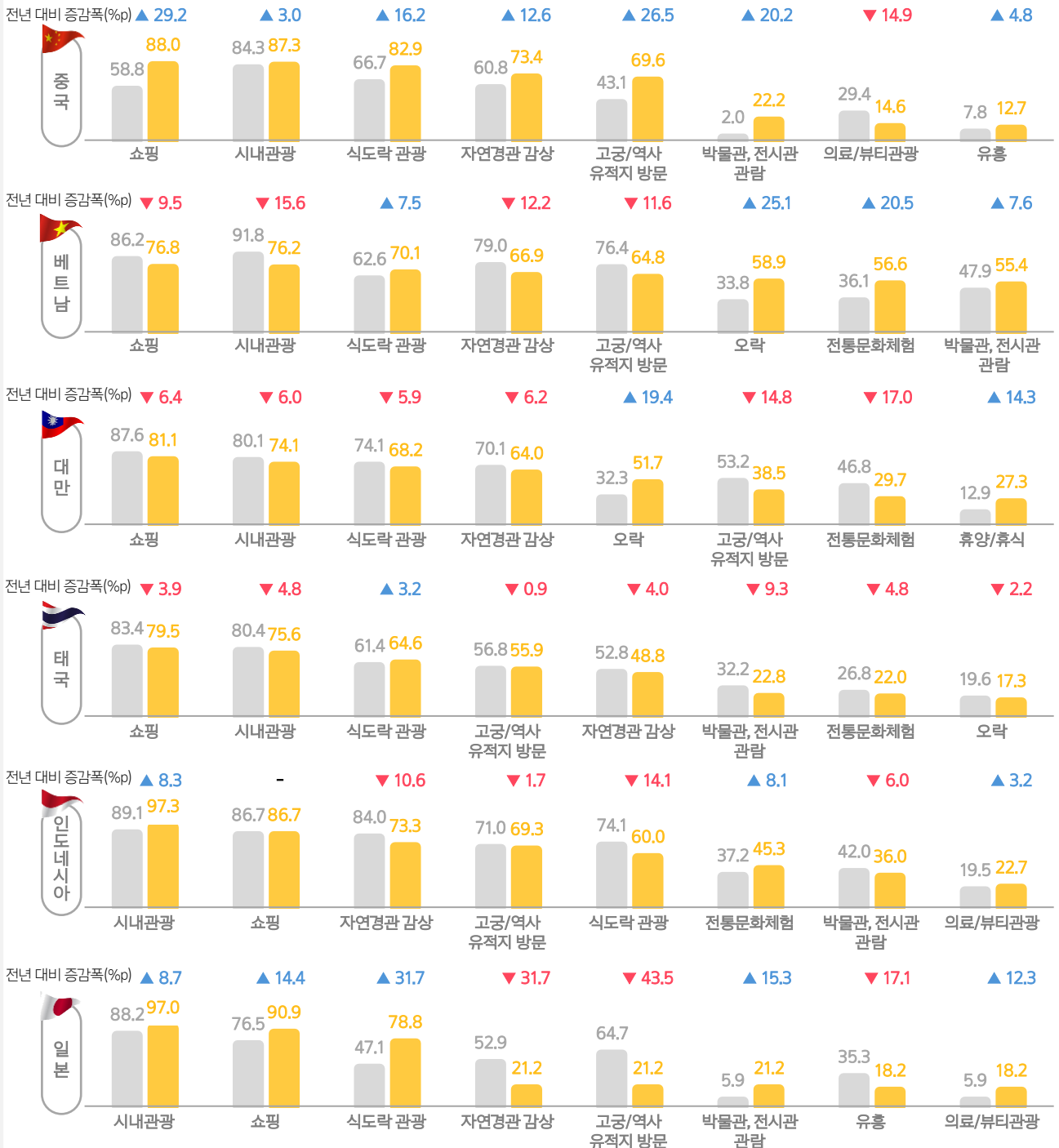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■ 2023년 ■ 2024년

### 전체



### 거주국별





방한 인센티브 여행의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79.7점으로, 항목별로는 치안(80.2점)이 가장 높고, 기타 항목은 대체로 유사한 만족도를 보이는 가운데, '언어 소통'(72.1점), '출입국 절차'(71.7점)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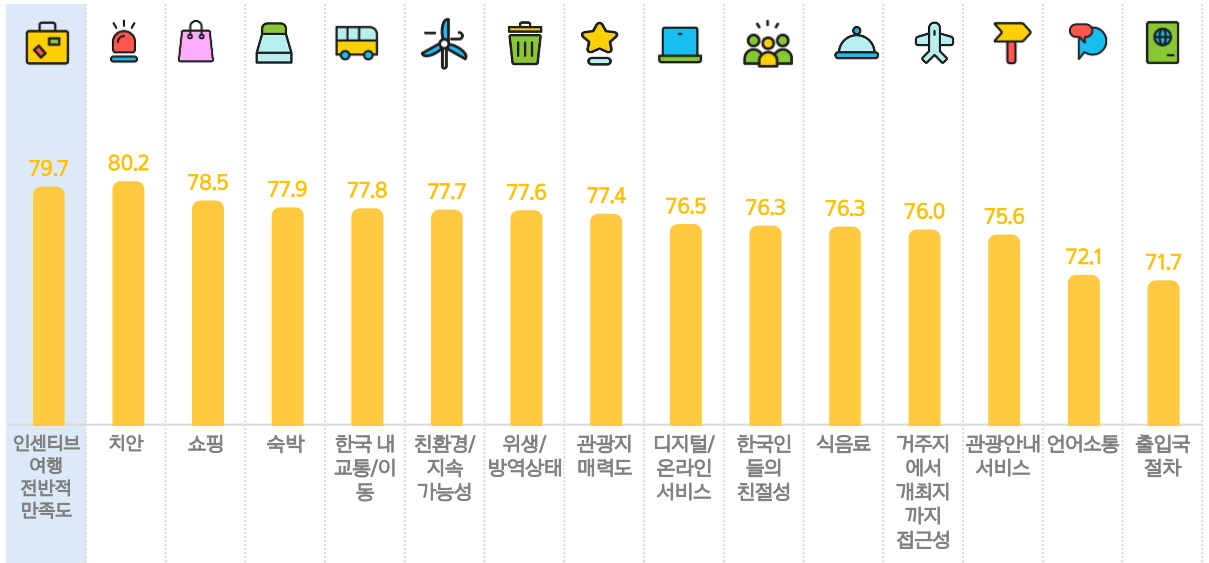
- 거주국별로 살펴보면, 중국, 대만, 태국, 인도네시아 참가자의 만족도 평가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, 베트남 및 일본 참가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
- 한편 '숙박'은 일본, '디지털/온라인 서비스'는 대만, '식음료'는 중국 참가자의 만족도가 보다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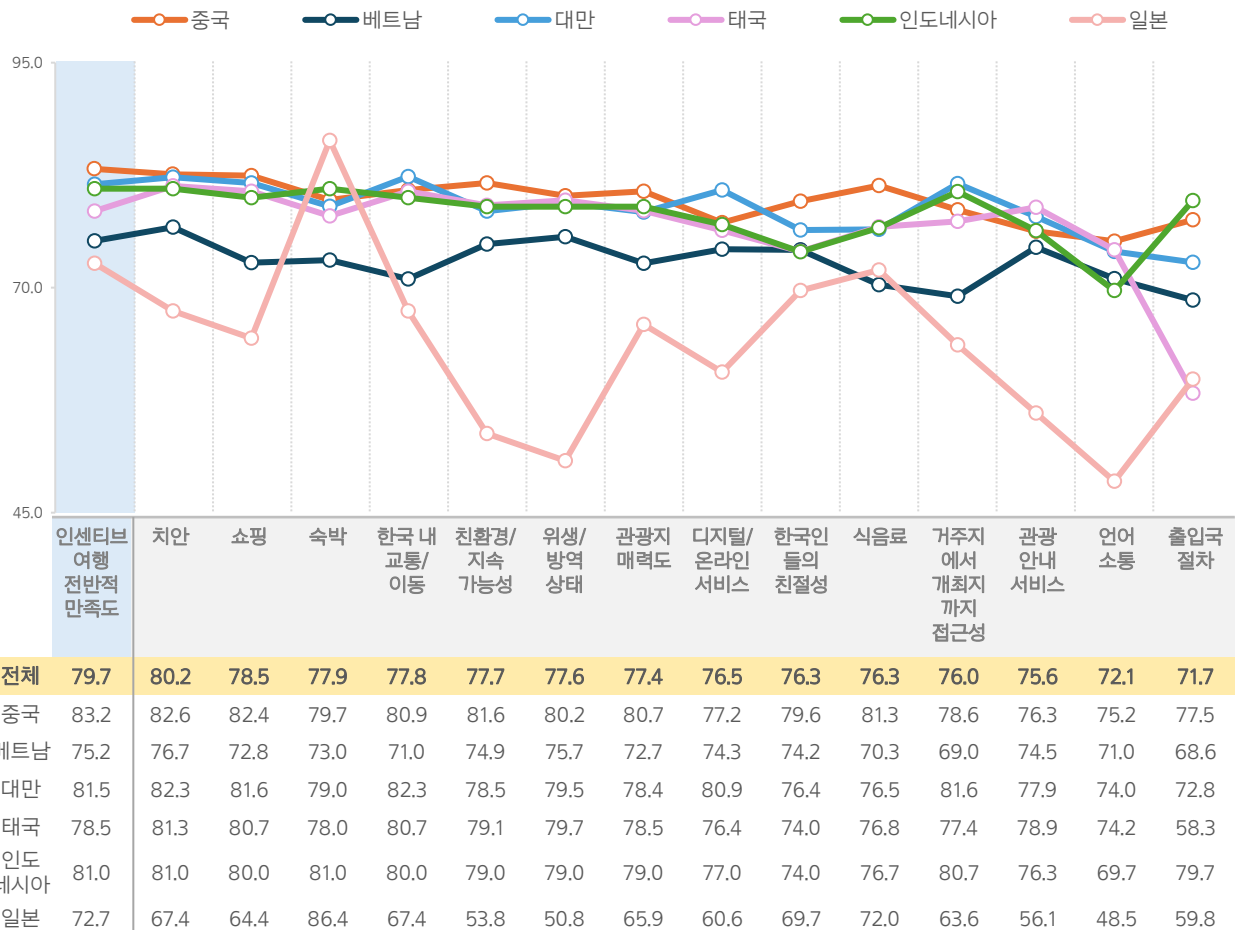
## 항목별 만족도

(평균, 단위: 점)

### 전체



### 거주국별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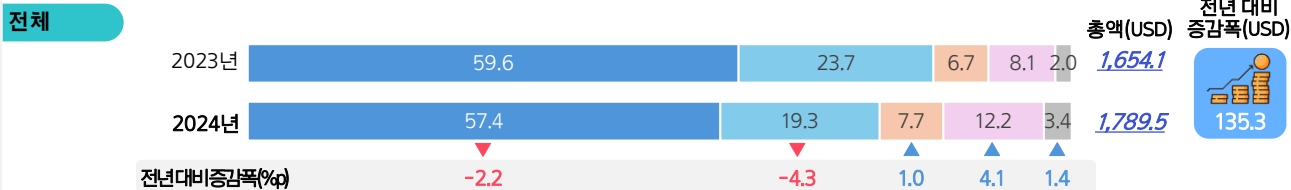
## 2024 인센티브 행사 참가자의 평균 소비액은 USD1,790 수준으로, 전년 대비 USD135 상승한 수준임

- 2024년 쇼핑비(57.4%), 식음료비(19.3%) 항목의 소비 비중이 높으나,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, 관광 활동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함
- 주요 거주국 가운데는 대만(USD2,176), 중국(USD2,073)의 평균 소비액이 보다 높고, 태국(USD1,155), 일본(USD1,222)의 평균 소비액이 낮은 편임
- 특히 대만은 전년 대비 소비액이 가장 크게 증가(USD833)했으며, 그 중 쇼핑비 비중의 증가율이 높고, 반면 태국은 전년 대비 소비액이 가장 크게 감소(USD344)했으며 쇼핑비 비중의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임



### 소비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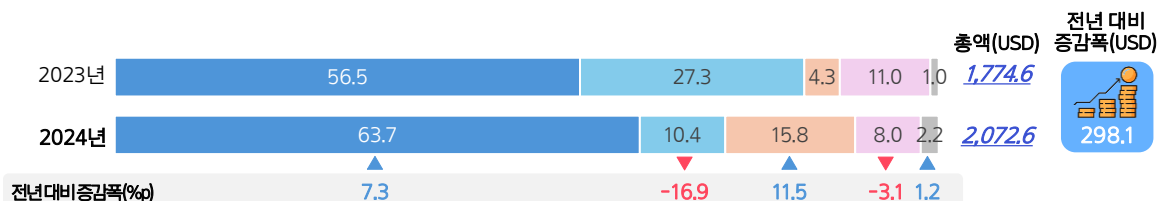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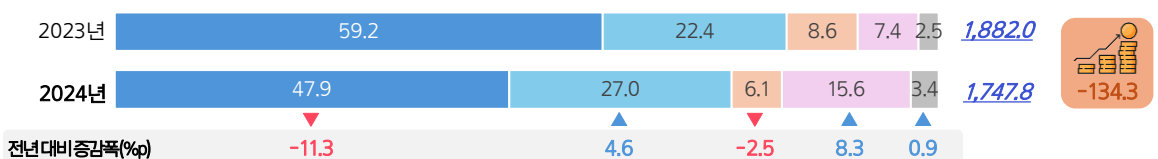
### 거주국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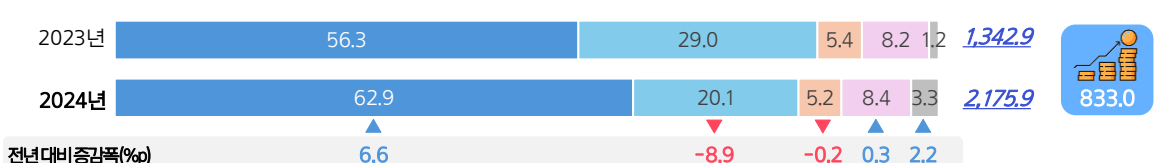
중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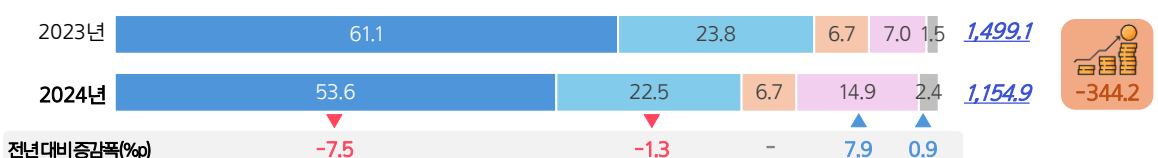
베트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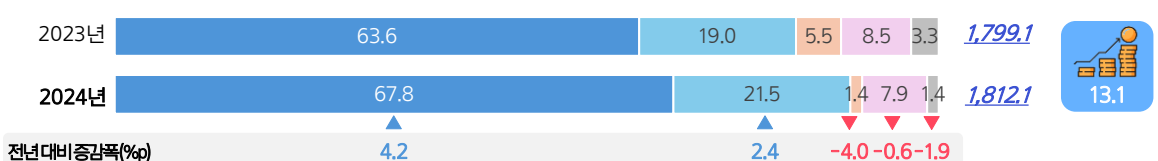
대만



태국



인도네시아



일본

